

# 회원사동향

## LG산전, 산업용 반도체칩시장 진출

LG산전(대표 김정만)이 앞으로 3년간 250억원을 들여 전력IT시스템과 산업용 반도체 칩 분야를 신사업으로 육성한다.

LG산전 관계자는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비해 국내에도 전력의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전력IT시스템 시장과 전력부하제어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신사업 기획팀의 주도하에 50여 명의 연구인력을 투입, 관련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에이직(ASIC:주문형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칩(Chip:반도체 소자) 비즈니스를 회사 차원에서 신사업으로 적극 육성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LG산전은 내년 상반기까지 칩 개발을 완료해 국내외 전자식 전력량계제조업체에 공급할 방침이다.

LG산전은 향후 3년내 이같은 2개부문 신사업에서 3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 LG산전, 전력설비 분석시스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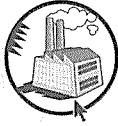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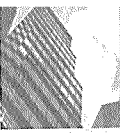
LG산전(대표 김정만)은 전력설비의 노후화(열화)를 진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열화상 카메라로 구성된 분석 시스템을 개발,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열화진단 및 분석용 소프트웨어는 LG산전이 산업자원부의 산업기반기술개발 과제 지원 자금을 포함 총 5억원의 개발비를 투입, 3년간 명지대, 대전대와

산학협동으로 국산화했다.

최고온도 자동탐색, 온도변화추이, 수명예측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 열화상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측정 및 분석 후 동시에 빠르고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LG산전측은 전했다.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로 진단 대상물질의 표면 온



## 회원사동향

도분포를 화상으로 측정하고, 열화진단 및 분석용 소프트웨어에 의해 온도변화추이 및 수명예측 등의 분석을 함으로써 전력설비의 노후화를 진단한다.

LG산전 관계자는 “전기사고 발생시 인명사고, 설비의 대형사고 등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전력설비는 어떤 제품보다도 정밀한 설비진단이 요구되고 있다”며 기존 사용자의 경험에 의존해 왔던 전력설비의 노후화 진단에서 벗어나, LG산전의 노하우

와 결합되어 개발된 이번 열화진단 시스템으로 전력설비의 수명을 이론적으로 예측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LG산전은 이번 시스템 개발로 진단 컨설팅을 포함한 열화상 진단사업에 본격 진출하며 전력설비 진단사업에서 올해 110억원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제룡산업, 파워콤에 광접속함체 공급

제룡산업(대표 박종태)이 파워콤과 광접속함체 제1지역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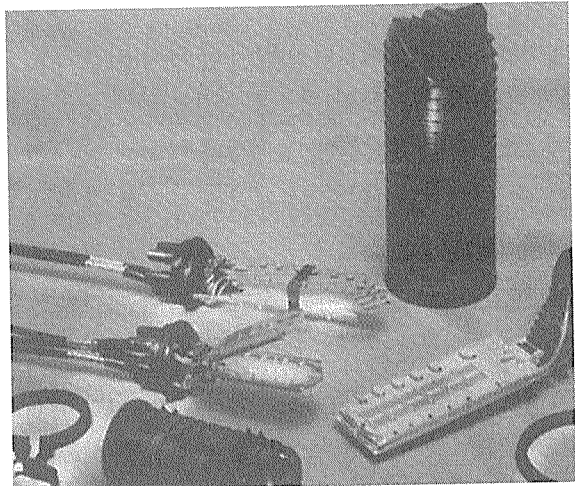
제룡산업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며 “단가계약 수주 물량은 대략 20억-3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공급하는 광접속 함체는 항상 개·폐가 가능한 클램프 방식을 채택했으며, 증설과 확장이 편리하며, 시공과 유지보수가 간편한 것이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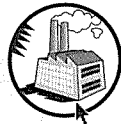
제룡산업이 파워콤과 30억원 상당의 광접속단자함체 공급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1분기 매출이 89억원의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 4월과 5월 각각 35억원과 37억원의 매출을 올려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34%의 매출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올해 매출과 경상이익은 각각 16.3%과 73% 늘어난 450억원과 4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룡산업은 이번 공급계약 체결로 회사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회원사동향

### 케이디파워, 그물망식 유통점 구축 완료

i중전분야 제조 및 서비스전문업체인 (주)케이디파워(대표 박기주)는 최근 제주도를 포함한 101개 그물망식 유통점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국 101개 유통망은 i지능형 수배전반을 포함한 i배선용차단기 등 중전분야 완성품 및 단품판매와 디지털기기, 시스템사업(SI)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지난 4년여에 걸친 탄탄한 검증과 지역별 포스트 구축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5개센터 및 6

개 본사지원 지사와 지역지사, 대리점 특판점에 이르는 조직을 지난 98년 당시 중전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도입 적용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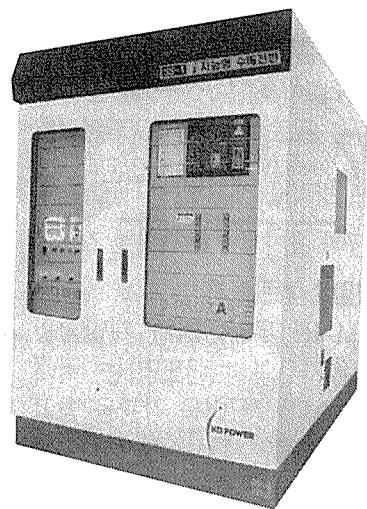
김학중 영업담당부문장은 “인터넷기반의 그룹웨어를 통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즉시 영업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며 견적 및 설계와 고객밀착관리까지도 가능한 유통망 밀착관리지원시스템이다”며 “이 시스템은 강력한 실시간 정보지원과 다양한 마케팅 기법”이라고 밝혔다.

### 케이디파워, 표준형 i수배전반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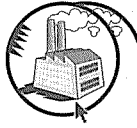
전력벤처기업인 케이디파워(대표 박기주)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PL법(제조물 책임법)에 대응하기 위해 ‘표준형 i수배전반’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천연아연도금후레임을 채택한 초안전 접지시스템으로 설계돼, 누전으로 인한 각종 전기재해를 사전예방, 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에너지융합리화자금지원대상품목에 포함돼, 3년거치 5년상환에 연리 4.75%의 자금을 민·관급 구분없이 100%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장 증설 등 신규투자나 변경공사시에도 같



케이디파워가 표준형 i수배전반을 개발했다



## 회원사동향

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부에서도 에너지절약 추진정책등의 제도지원과 권장등을 통하여 교육부 시설확충 및 민간분야 시설투자에 적극 활용될 것이라고 이회사 관계자는 밝혔다.

지능형 i수배전반은 피크 및 역율제어와 누설전류제한 등을 DB화하여 최적운전하는 것으로 전기요금을 20%까지 절약할 수 있으며 특고압에서 직접저압

으로 변압하는 일체화된 첨단 수배전반시스템이다.

박기주사장은 “주문자생산방식의 수배전반을 전자재상에서 판매될 수 있는 일용상품화하는 것이 금년의 제1차과제”라고 밝히고 “디지털과 인터넷기술을 접목한 살아 숨쉬는 듯한 표준화된 i중전기기 제품 시리즈를 7월 출시목표로 최종 마무리중에 있다”고 말했다.

### 미미전자 형광등기구 9개품목 조달청과 단가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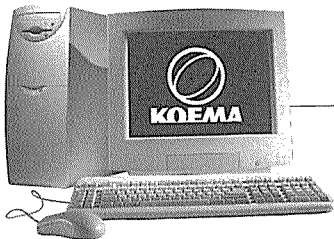
미미전자(주)(대표 원종만)가 조달청과 형광등기구 9개 품목에 대해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해 공공부문에 대한 제품 공급이 활기를 띠 전망이다.

미미전자가 이번에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맺은 제품은 내진행거식 매입 슬림형 형광등기구 9개 품목으로 32W 2등용 7개, 20W 2등용 2개다.

이 제품들은 조달청 우수제품, KT마크, 발명특허, 실용신안 등을 획득하는 등 품질면에서 매우 뛰어나다.

특히 공간활용을 고려한 세련되고 슬림한 디자인으로 일반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미미전자 관계자는 “이 제품들은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선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KT마크, 발명특허, 실용신안 등을 획득해 조달청 3자 단가계약을 맺을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다”며 “이번 계약 체결로 공공부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흥회 HomePage 이용안내  
<http://www.koema.or.kr>

